

<2025년 1월 29일 수요말씀>

사람은 생각으로 살아간다

본 문 :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빌립보서 4장 6~7절>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잠언 13장 4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한국 및 아시아 몇몇 나라들은 ‘음력설’ 을 쉼니다.

오늘은 ‘음력설’ 당일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위해 변함없이 말씀으로 함께하십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더욱 영육 강건하고 은혜 충만한 설 명절 되길 빕니다.

오늘은

‘사람은 생각으로 살아간다’ 라는 주제로 말씀하겠습니다.

특별히 잠언으로 말씀해 줄 테니 잘 듣기 바랍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1. 사람은 생각으로 살아간다.

고로 생각을 잘하고 행해야 한다.

그릇된 생각, 마음은 이야기하여 인식을 올바르게 잡아 주어라.

2. 생각이 무엇이나. 생각이 무엇인가 배우고 행하여라.

3. 각종 과일을 여러 가지 갖다 놓고 먹고 싶은 것을 생각하는 것,
어떤 것이 맛있고 좋을까 생각하는 것을
생각, 마음이라고 한다.

4. 생각이 무엇이나 하면, 자기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어디 두었지!’ 생각나는 것이 생각이다.

5. 새벽에는 생각이 또렷하게 잘 난다.
피곤했던 몸이 잘 자고 쉬어서다.

6. 걱정, 근심, 염려, 불안, 공포, 두려움이 있으면
그런 생각만 하게 된다.
‘해결됐다!’ 하면 금세 그런 생각이 사라진다.

7. 생각은 뇌신경에서 발생한다.
만일 사람의 뇌신경을 들어내면
살아 있어도 생각이 안 나고 식물인간 된다.

뇌를 다치면 생각이 안 난다.

눈으로 보듯이, 귀로는 듣듯이, 코와 폐로 숨 쉬듯이
뇌로는 생각한다.

8. 알아야 생각을 잘한다.

9. 글과 어떤 것을 보아도, 들어도

생각과 마음으로 ‘사실이 맞나?’ 확인해야 한다.

생각과 마음이 정말 잘해야 한다.

10. 생각, 마음이 길들어 습관 되면

몸도 똑같이 그 자세, 그 행동을 하면서 산다.

그릇되게 인식되면 그대로 한다.

생각, 마음이 운전대와 같다.

11. 어떤 것은 사람 생각과 하나님, 성령의 생각이 같다.

어떤 자는 지구, 태양, 달을 보고 같다고 한다.

같은 우주의 존재체는 맞다. 그러나 각각 특성이 다르다.

이같이 하나님 생각과 사람 생각은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 생각은 높고도 높다.

(이사야 55:9)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절대 믿고 섬기고 살아야 한다.

그때그때 그 말씀대로, 그 뜻으로,

그 맘과 생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야

잘 되고 형통한다.

12. 사람은 생각으로 살아가니,

생각 그릇된 것 그냥 두면 평생 그같이만 알고 산다.

13.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그 주관권에 보낸 자가 있다.

구원자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행하신다.

고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살아야 잘되고 형통한다.

14. 저마다 매일 새벽에 기도하여라.

하나님 생각, 성령의 생각대로 살게 진정으로 기도해야 한다.

오직 하나님과 일체 된 삶이다.

15. 생각과 마음에서 하나님 성령 성자 주를 생각 안 하고 살아가면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게 된다.

16. 생각, 마음이

- 하나님을 생각하냐,

- 성령을 생각하냐,

- 주를 생각하냐,

- 세상 어떤 것을 생각하냐에 따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

선생도 늘 하나님 성령 성자 주를 생각하면서 컸다.

17. 운전하다 땀생각하면

순간 차는 운전하던 그대로 가서 앞차와 충돌한다.
심지어 절벽에 떨어져 죽기도 한다.

18. 정신 차리고 생각, 마음을 자기가 행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19. 어떤 자가 손이 하나 없어 “왜 이리됐냐.” 물었다.

큰 기계로 일하다가 순간 땀생각하여
손이 기계에 들어가 잘렸다고 하였다.

이렇게 생각 잘못하여
죽고, 다치고, 불내고, 떨어지고, 자살하는 자들이
지구 세상에 1년이면 수백만 명, 수천만 명 된다.

20. 모두 저마다 지난날 생각을 잘못해서

사고 나고, 문제 일어나고, 다치고, 아프게 되고,
손해 가고, 싸우고, 헤어지고, 당하지 않았느냐.

21. 생각 잘해서 섭리역사 따라오며 얻고 희망 이루며 살다가 생각 잘못하여 나갔다.

이런 자들이 결국 후회하고, 죽고, 고통 겪는 것 보지 않았느냐.
생각이 운명을 좌우한다.

22. 그러므로 매 순간 생각을 잘하고 살아가야 한다.

오직 주 하나님과 성령님의 생각으로
매일 매시간 살아가야 한다.

23. 그림 사고도 안 나고 잘되고

기쁨으로 가진 희망을 이루며 천국같이 살아간다.

24. 성경을 보면,

- 생각 잘못해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행하지 못하고
자신이 행한 대로 받은 자와
 - 생각 잘하여 하나님과 그 보낸 구원자와 일체 되어
형통하게 산 자,
-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

25. 생각 잘못하고, 그로 행하고 살면 스스로 사고 난다. 고생한다.

하나님이 형벌 안 주셔도 저마다 원칙을 벗어난 고로 그러하다.

26. 누구든지 진리의 법칙과 순리를 벗어나면

벗어난 만큼 스스로 고통을 받게 된다.

하나님 법을 벗어난 자는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심판하기도 하신다.

27. 기독교에서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섬긴다.’ 하여

선생이 가서 알아보니,

천주교도 예수님만 메시아로 섬기고 있었다.

마리아도 존경하여 섬기긴 한다.

마리아는 예수님 어머니기에 섬겨도 모순은 없으나,

지나치면 안 된다.

28. 글 써 놓고 열 번씩 봐도 틀린 글자가 안 보일 때가 있다.

‘틀린 글자 있다.’ 인식하고 보면 찾아낸다.

인식의 눈이다.

이같이 성경도 그릇되게 풀고 그것이 맞다고 인식하면
천 년 가도 그런 줄 안다.

29. 사람들이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잘못하고 있나 알아보고 풀어 주고 대화해야 받아들인다.

이같이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도
인식부터 잘하고 믿고 사랑하여라.

30. 생각한 대로 살아가게 되고 행하게 되니 생각을 잘해야 한다.

입력된 대로 비행기도 컴퓨터도 작동하듯이
뇌, 마음, 생각도 인식된 대로 행한다.

31.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생각, 성령 생각, 주의 생각,
온전한 생각을 하고서 행해야 잘된다.

32. 시대마다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 차원을 높이기 때문이다.

고로 옛 시대를 볼 때는

옛날 그 시대에 해당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현재에는 현재에 맞게 온전하게 생각 집중하고 행해야 한다.

33. 어느 때는 생각 안 하였는데도

몸이 습관 된 대로 행하기도 한다.

무의식중에 행하게 되니 항상 정신 차리고 육을 잡고 행하라.

34. 생각 실수하면 죽기도 한다.

35. 생각 잘하려면 배워서 알아야 한다.

생각이 미련하고 게으르고 무지하면 그대로 행한다.

36. 자기는 모르고, 아는 자만 안다.

고로 생각이 이상적으로 높은 자에게 배우고 행하라.

37. 최고 높은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고,

몸은 그 생각을 실천하라.

38. 단련하고 행하라.

생각이 좋아도 실천할 능력이 약하면 못 한다.

몸이 능력 없으면 못 한다. 고로 몸 단련이다.

39. 자기 생각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단련시켜 놓지 않으면

좋은 생각이 있어도 못 한다.

하나님 생각과 자기 생각이 일체 되어야 담대해진다.

이렇게 행하면 후회가 없다.

자꾸 해야만 자신이 생긴다. 기술이 발전한다.

고로 생각이 날게 되어 담대히 행하게 된다.

40. 하나님 성령 구원자를 부르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와 생각이

하나님에 속한 생명권의 생각을 하는 것이 ‘구원’이다.

41. 사망권에 있는 자, 괴로우니 벗어나려는 생각만 하게 된다.

어느 주관권에 사느냐에 따라 거기에 속한 생각을 하게 된다.

42. 생각은 강한 자극을 받을수록 또렷하다.

43.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저마다 그 주관권의 생각을 한다.

마음도 그에 속한 마음이다.

44. 고로 천국같이 만들어 놓고 사는 자의 생각과

지옥 같은 고통을 받으면서 사는 자의 생각이 다르다.

45. - 구약에서 사는 자들 생각이 다르고,

-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예수님께

배우고 행하면서 사는 시대에 사는 자들 생각이 다르고,

- 새 시대에 사는 자들 생각이 다르다.

46. 신약에서 기다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말씀을 듣고 이미 희

망을 이루고 사는 자의 생각은 신약에서 기다리며 사는 자의 생

각과 다르다. 신약인들의 신앙생활과는 아주 다르다.

47. 기다린 희망을 이루고 사는 자와

이루지 않고 사는 자는 생각도, 삶도 다르다.

생각을 잘하고 싶어도

그 사는 처지와 주관권이 다르니 잘할 수가 없는 것이다.

48. 가령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만난 자의 생각과
못 만나고 기다리는 자의 생각은 다르다.
49. 가르쳐도 생각들이 잘 안 바뀐다.
50. 생각을 배워라.
너희에게 생각에 대해 가르쳐 주리라. 내게 배우라.
51. 기도하고 신령해야 영의 생각을 하게 된다.
52. 새 시대에 사는 자는 더 높은 생각을 하게 된다.
53. 시대 말씀을 깊이 읽고 생각해 보아라.
54. 네 생각이 어디 있느냐.
55. 어떤 글을 읽고 생각에서 좋으면 따르고,
보는 대로 생각에서 좋으면 따라가게 된다.
56.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아도
순간 기분에 생각에서 좋다고 하며 따라가게 된다.
57. 하나님 성령 성자께 굴복하고 절대 믿고,
절대 좋아하고 사랑하며 따라가야 한다.
그래야 그로 인해 열매 열린 것을 보시고

그제야 행위대로 그만큼 대해 주신다.

58. 열매 열어서 먹어 보고 맛있는 만큼
주인이 사랑하여 또 퇴비를 해 준다.
다른 자에게 자랑도 한다.
“열매가 생긴 것같이 맛있다.”
“먹어 보니 맛있다.” 하며
진짜 좋은 모습 그대로 대한다.
열매가 모양보다 맛없으면 실망이다. 그대로 대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저마다 열매 열리는 것을 보신다.

59. 하나님과 성령은 누가 무슨 말 하고 악평하든지,
나쁘다고 하든지 좋다고 하든지
그 열매를 보고 취해 보고 대하신다.

그러므로 저마다 생각과 마음을
진정으로 사랑으로 절대적으로 선하게 온전하게
오직 주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일체 되게 하여라.

주의 마음과 일체 되어 살아서
하나님 진액과 성령의 양분을 흡수하여라.
고로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고 맛있는 인생이 돼라.

60. 세상 과일 열매 중에는
겉은 아름답고 멋져도 맛이 없는 것이 있다.
음식도 푸짐한데 맛이 없으면 그 식당에 다시 안 간다.
인생의 열매는 ‘생각’ 이다.

인생 생각 잘하며 맛있게 살아라.

61. 사람도 과일같이, 어떠한 존재물같이 ‘좋아야’ 한다.

62.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사는 자를 찾으신다.

(요 4:23~24)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

그 보낸 자가 신령이요, 진정이다.

고로 “그와 예배하고 하나 된 자 찾는다.” 함이다.

63. 생각을 온전히 하여라. 그러나 스스로는 안 된다.

64. 예수님도

“나 예수는 스스로 하지 않는다.

내 아버지가 행하신 대로 일체 되어 한다.

나 스스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다.” 하셨다.

(요 5:19)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요 5:30) “내가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절대 신이면 스스로 하여도 온전하다.

65. 예수님은 절대신이 아니라 스스로 하지 않는다고 하셨다.
 사람이신 메시아다. 사람이신 구원주시다.

(딤후 2:5)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66. 주는 구원시켜 하나님께 가게 한다.

67. 주의 구원은 하나님 말씀을 주어 듣고 행케 하는 것이다.
 자기를 따라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같이 살게 해 준다.

(요 5: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68. 하나님을 부르고, 성령도 부르라. 주를 부르라.

69. 시대마다 보낸 자를 보고 새 시대인지 안다.

70. 구약도 신약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 믿는다.

그러나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 믿는다. 고로 구약과 다르다.

하나님을 회교도 믿고, 유대교도 믿는다.

그러나 신약은 시대 보낸 예수님을 통해서 믿으니 딴 세상이다.

71. 그들이 소원한 것은 믿고 따른 자를 통해 이뤄졌다.

시대 보낸 자를 따라

- 시대가 좌우된다.

- 부리는 종인지, 자녀인지, 사랑하는 자인지 구분된다.

72. 시대 차원을 높일 때마다 하나님은 믿고 따르도록
시대 차원에 해당하는 자, 그 차원에 합당한 사명자를 보내신다.
너희가 이것을 생각하고 알아야 하리라.

73. 너희도 너희에 해당하는
구시대 차원이 끝나고 새 시대 되면
너희에게 합당한 자를 보내서 일 시키지 않느냐.

74. 교회도 그러하다.
그런데 구시대를 따르는 자와 지도자들은
새로 보낸 자를 안 따른다.

75. 이는 몰라서다. 이는 구시대 차원에 처해서다.
새로 보낼 때는 어떻게 하라고 사명 쥐서 보낸다.
고로 그 말을 들어 보아라.

76. 성공 비법은 ‘자기 타고난 재능 위에 배우기’ 다.
재능이 있어도 배워야 그 재능을 쓴다.

77. 알고, 실천이다. 실천이란 ‘투지력’ 이다.

78. 실천하면 성공한다.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실천이 필요하다.

79. 알아야, 실천하여 투지로 자기 재능을 발휘한다.

80. 생각 온전하게 하기다.

무슨 생각 하느냐에 따라

- 사망으로 지옥으로 혹은 천국으로 가게 된다.
- 성공 실패가 좌우된다.
- 허무로 끝나게도 되고, 성공으로 가게도 된다.

81. 하나님도 주도 재능과 능력대로 일을 맡기신다.

82. 우리가 생각을 잘하고 행하더라도

행할 때는 생각대로 잘 안되기도 한다.

이것은 육신이 기술과 능력이 안 되어서다.

육신이 약하고 몸이 생각대로 안 되어서다.

예수님이

“마음은 좋아해서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기도 때 조는구나. 자는구나.” 하셨다.

(마 26:41)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83. 고로 육신을 연단하고 단련하고, 기술을 배워야 한다.

축구하는 자가 맘대로 할 수 있다면 다 이긴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육신이 생각한 기술대로 안 된다.

이는 전문 운동선수가 반복하듯이 몸으로 계속해 봐야 잘 된다.

84. 신앙인들도 기도하여서 감동 받으면

마음과 생각이 좋아 원하고 행하고자 하는데, 안 된다.

이는 몸이 제대로 안 따라줘서 안 되는 것이다.

운전도 마음으로는

‘사고 나면 죽든지 병신 된다’ 고 생각하고 알지만,

육신이 제대로 운전을 못 해 사고 나기도 한다.

고로 마음도 생각도 잘하고, 행하기도 잘해야 한다.

85. 월명동 야심작도

하나님 구상대로 잘하려고 마음과 생각을 다 해서 했는데

행할 때 기술이 없으니 무너졌다.

86. 한 가지만 생각하고 하지 말고

이것을 함으로 ‘다른 문제 안 생기나.’ 생각하고 해야 한다.

이것이 천재적 생각이다.

87. 하나님과 성령께서

“그것 한 가지만 해결하기 위해 가면 안 된다.” 하셨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행하여라.

성령과 같이, 사명자와 같이 행하여라.

88. 평소에도 생각, 마음으로 하나님 성령을 부르고, 잡생각 하지 말

아라.

89. 하나님과 성령을 부를 때

사탄, 마귀, 귀신이 마음에 역사 못 한다.

90.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하였다.

(롬 10:13)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91. 마음은 조석으로 영향받는 대로 변한다.

92. 굳건하게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체 돼라.

93. 혼자 하면 겁나고 자신이 없으니

2명, 3명, 6명, 7명씩 뭉쳐서 하여라.

그래야 마음, 생각들이 제재를 안 받고 하게 된다.

94. 마음과 생각은 듣고 보는 대로 바뀐다.

고로 봐야 할 것만 보고, 들을 것만 들어야 한다.

마음과 생각은 몸으로 느끼는 대로 바뀐다.

95. 상대로 인해 자기가 해를 받으면 그 마음이 상처를 입는다.

고로 그가 행한 대로 자기도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96. 마음도 육체같이 상처 받는다.

97. 하나님과 성령의 생각, 주의 생각을 가져라.

98. 마음으로 흥분되거나 좋으면 행하려고 한다.

99. 보고 듣고 느끼어도 ‘해야 하나’ 분별하라.

좋아도, 하면 해가 되는 것이 많다.

100. 마음을 신령하게, 생각을 영적으로 만들어라.

그래야 하나님 생각대로 살게 되고 행하게 된다.

101. 행하지 않아도

악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면 죄를 짓는다.

그러므로 마음, 생각을 다스려야 된다.

(마 5:28)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요일 3:15)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02. 마음 문 꼭 닫고 잠그고, 열지 말아라.

필요한 것, 해야 할 것 외에는 하지를 말아라.

103. 나쁜 마음, 이성 음욕을 가지거나,

형제가 행하는 일을 제대로 모르면

오해하고 미워하게 된다. 오해를 풀어라.

104. 알고 보면 어떤 것은 근거가 있더라도

그 한계를 넘는 오해를 하여 도리어 죄를 짓게도 된다.

105. 모르는 것같이 큰 손해도 없고, 큰 죄도 없다.

(말씀 마쳤습니다.)